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중남임업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비	3000런민비/한 학기
파견지역	중국 후남 장사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6.03.01.~2016.07.18	기타비용	

## ▣ 파견자 정보

성명		학과	
성별		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6. 7. 22.

파견자 : (서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국제건물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세 가지 수준별 분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수업은 독해, 말하기, 듣기, 종합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나뉘어져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었다. 고급반의 경우 HSK6급 수준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기본 5천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수업은 철저히 교재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 단원정도를 나가고 매 단원이 끝나면 받아쓰기를 진행했다. 수업 과제는 보통 매 단원 뒤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오라고 하였으며, 수업 중에 과제를 확인해 틀린 부분을 수정 해준다. 보통 내가 있던 고급반에는 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결석이 많아 평소 본인 포함 두 세명 정도가 수업을 했으나, 학생이 적다고 하여 교과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교재 중심의 진도를 계속해서 나갈 뿐 이어서 학생 수가 적어서 좋고 많아서 안 좋고 등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사실 반이 세 가지로 구분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본인은 5급을 갖고 있었기에 고급반에 배정된 것 같았는데, 성조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고급반의 다른 학생들은 이미 중국에서 1~3 년 정도 거주한 사람들이었으며, 내겐 교재의 수준이 너무 어려웠고, 그렇다고 중급반으로 가기엔 중급반은 3급 정도의 수준으로 내게 맞지 않았다. 수준별 반이 최소한 5개 수준으로는 나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시점까지 5개월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일주일에 5일씩은 비가 왔다. 일교차도 매우 크고 햇볕도 매우 강렬해 선크림을 비르고 나갔고, 6월 동안은 기온이 35도를 넘어 체감온도는 40도를 넘었다. 6월 한 달은 밖에 나가면 어지럽고 걸을 수가 없어 계속 더위를 먹거나 감기몸살이 걸리는 등으로 매일같이 방에만 있었던 것 같아 그 시간들이 시간이 아깝고 힘들었다.

장사에는 본인이 막 왔을 때에는 교통수단은 택시와 버스가 있었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언제나 교통체증이 심하고 원하는 버스가 오는 버스정거장에 가려면 20분정도를 걸어 나가야 했다.

그래서 보통 유버, 띠띠띠처 라는 앱을 이용해 개인택시를 타고 다녔다.

학교의 위치가 변화기에서도 먼 편이었고,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이 많이 된 편인 도시는 아니었다. 항공편도 장사의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으로 일반적으로 장사에 있는 한국인들은 상하이 경유로 들어오는 편이었다.

음식은 한국사람 입맛에 짜고 기름지고 매울 수 있으며, 학교 식당이나 학교 근처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날씨가 습하다 보니 몸에 습이 들어간 것을 땀으로 빼기 위해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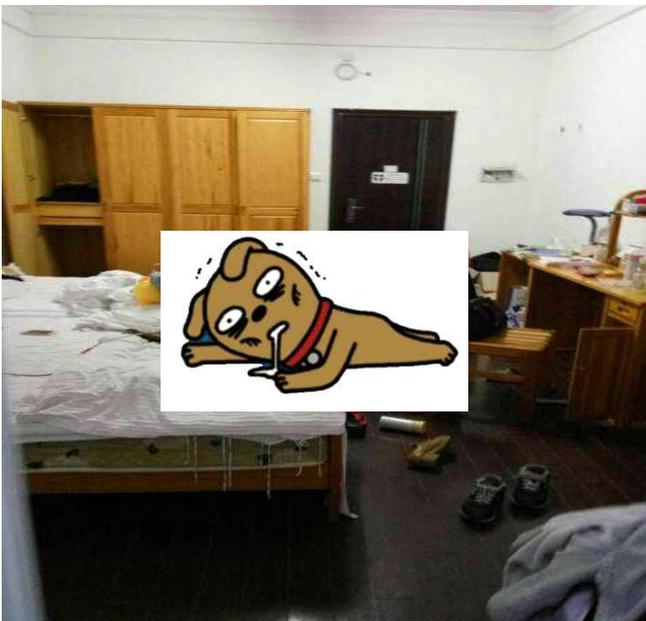
## ▣ 기숙사 정보

비 용	30000원민비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통금도 없고, 같은 건물 아래층은 학생호텔로 이용 중이었다. 위층은 모두 외국인 강사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주인사항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침대가 매트리스가 아니고  
나무판 같은 것이 있었다.  
대신 침대는 더블 침대로 매우 크고  
기숙사에 입사했을 때에는  
침구가 갖추어져 있었다.  
빨래를 널 때 옷걸이를 쓰기 때문에  
옷걸이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강의실은 국제건물에 있었다. 국제건물 교실에만 에어컨이 있어 중국학생의 수업에 가면 에어컨이 없고 환장실 문이 없는 곳도 있었다. 모든 것은 국제건물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수업이 끝나면 경비아저씨가 문을 잠그기 때문에 교실을 이용하거나 하기는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다.



식당은 5개가 있는데 우리 동선에서 갈 수 있는 식당은 제 4식당과 제 5식당이였다. 음식은 대부분 장사 음식으로, 메뉴는 식당들마다 비슷했다. 가격은 보통 10위안에서 18위안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반에만 이용하고 더워지고 난 후에 앞 건물인 4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 사 진 첨 부

도서관은 1층만 쓸 수 있었고 학교 측에서 도서관에 출입하는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예약석인 6층은 쓰지 못했고 입장할 때도 카드가 필요해 근처 슈퍼를 통해서 돌아서 다녔다. 도서관은 10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중국 교환학생을 온 것이 정말 잘 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학기의 시간동안 순천향대에서 생활을 하는 대신 외국어를 배우며 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내가 파견된 곳에는 다른 교환학생이 없었고 한국인도 2명 정도뿐이어서 한국인들과 어울린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 조금 외로웠지만 오직 현지인들과만 어울렸던 것 같다.

매일같이 중국인들과 있다 보니 친해져서 외국인 친구, 한국인 친구로 대했던 태도가 이제는 개인 대 개인의 가까운 관계가 되어 중국 친구가 보통 그 이전에는 잘 말하지 않던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도 잘 말하기 시작했다. 친구 할머니 집인 시골에도 놀러가며 현지인들의 가정과 음식도 먹어보고 친구들의 친척들도 만나며 재미있는 교류의 기회들이 많았다. 현장학습은 장가계로 가 평소 교류가 없던 초급반 중급반 학생들과도 친해져 중국인 외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다.

수업은 진도가 빨라 따라가기 힘들었고 받아쓰기를 준비하느라 초반에는 매일 같이 도서관에만 갔었다. 매일 교실과 도서관을 전전하며 이리저리 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정한 선에서는 내려놓고 활동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유일하게 만족하지 못했던 점은 학교의 시스템이었는데, 학사일정을 정해두지 않고 딱쳐서 회의를 해서 일정을 결정하는 등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현장학습도 며칠 전에 결정하였으며 일정이나 준비물에 대한 안내문 또한 없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른채 따라 다녀야 했고 기말고사도 언제 끝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커닝이라거나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일관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데 맘고생을 많이 했다. 처음 갔을 때 학사일정 안내문을 주거나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 아쉽다. 내가 유일한 교환학생으로서, 외국인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그에 대한 시스템이 잘 잡혀있지 않아 있었다. 음식이 입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너무 짜고 맵고 기름져서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 올라오고 배가 아파 약속이 없는 날에는 밥을 먹지 않고 과일을 먹으며 지냈다. 나는 인턴 예정이 잡혀있었고 학교일정에 학생이 개인적으로 여행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여행은 가지 못하고 한국에 바로 귀국하였지만, 출국 전까지 매일같이 중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교환학생이 많은 학교에 갔다면 하지 못했을 깊은 교류를 했다. 처음에 갔을 때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화차이들이 크고 작게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익숙해지니 대처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으로 다시 중국에 온다면 훨씬 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에 중국에 오기 전에는 혼자 장사에 교환학생으로 간다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중국어 진보가 빠를 수 있었고, 중국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점에서 혼자 온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 혼자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한중교류회에도 참여해 창사의 다른 한국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열심히 다른 활동을 찾아다녔던 것 같다. 귀국 후 바로 오픽을 보았는데 11레벨이 나와서 막 교환학생을 왔을 때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내 모습이 참 많이 생각났었다. 소중한 추억과 관계, 언어까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도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 모든 시간들에 감사한다.